

# 환경교육시설 문 활짝

## 임실군, 옥정호에 들어서

생태한민국 생태환경의 메카가 될 임실군 옥정호에 환경교육시설이 문을 열었다.

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옥정호의 생태적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을 마련,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옥정호 환경교육시설은 옥정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관리사무실과 함께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상 4층 연면적 952.92㎡ 규모로 지어졌다.

군은 그 동안 시설 노후화로 옥정호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알리는 데 어려움을 겪어오던 중, 총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교육시설로 다목적실 및 세미나실, 숙소로 각각 구성된 새로운 공간을 마련했다.

옥정호는 1965년 우리나라 최초의 다목적 댐으로 조성됐으나 담수호로 바뀌면서 유입부에 사력 퇴적지가 넓게 조성돼 있다.

호수와 하천, 산지, 경작지 등 훼손되지 않은 천혜의 자연경관과 물안개로 전국의 사진작가와 여행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는 전라북도의 보물이자 자산으로 손꼽히고 있다.

치즈테마파크와 더불어 임실의 대표



임실군 옥정호에 환경교육시설이 문을 열었다.

적인 관광 랜드마크이자 고유의 생물 다양성과 생태적 특성이 잘 간직되어 있다.

옥정호는 흰꼬리 수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 10여 종을 포함해 1천여 종의 다양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등 하천습지와 담수호 습지의 특성이 공존하는 천혜의 생태환경을 지닌 곳이다.

이에 군은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과 아울러 환경부와 함께 우리나라 3대습지 규모인 태극 물둘이 습지 조성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옥정호 물문화 물레길 조성사업과 옥정호 마실길 생태조성사업 등 총 445억원을 투자, 국내에서

손꼽히는 명품 자연 생태교육관광지를 만들어 가고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우리 군은 그동안 옥정호의 우수한 생태환경과 수질 보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환경교육시설을 통해 옥정호의 생태환경을 직접 보고 연구하며, 수질보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토론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옥정호 환경교육시설은 임실군민은 물론 전국의 누구나 옥정호관리사무소(☎063-640-4113)로 접수하고 사용료를 납부하면 이용할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올해도 장류체험관 인기몰이

순창군의 대표 체험공간인 장류체험관이 올해도 인기몰이에 나선다.

순창군 장류사업소는 장류체험관이 11월까지 관광객들의 체험 문에 이어 숙박예약까지 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류체험관은 순창군 고추장민속마을 일대에 위치해 장류요리체험과 고추장만들기, 인절미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으로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다. 장류체험관내 19실의 숙박시설과 인근에 강전산, 발효소스도굴, VR체험관 등 볼거리도 갖추고 있어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장류체험관은 지난해 1만 5천명의 관광

객이 방문해 2017년 대비 1천명 가까이 줄었다.

이는 2017년 경주지진으로 수학여행단 등 관광객들이 지난해 일시적으로 전라도 선호 현상을 보여 늘어난 것으로, 2016년과 비교하면 오히려 21%(2,200명)가 증가한 수치다.

장류체험관은 체험학습과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해 온 온 전략적 홍보마케팅을 실시한다. 전국의 학교와 여행사 4,500여 곳에 장류체험 홍보물을 발송하는 수도권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 등도 추진해 수도권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릴 방침이다.

장류체험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우수농어촌 식생활체험공간으로 선정되었으며, 2016년에는 진로체험 인증기관에도 선정된 바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남북교류협력 위원회 구성·운영

남원시가 남북평화협력시대에 대비해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남원시는 21일 남원시청 2층 회의실에서 남원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먼저 정부의 대북사업 추진

방향, 향후 남원시의 남북교류사업 추진방향, 위원회 기능 등에 대해 안내하고, 동영상 상영, 위촉장 수여, 위원장 인사말, 부위원장 선출, 토론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 등 화해 분위기 고조에 발맞춰 남북평화 협력시대를 남원에 맞는 남

북교류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했다. 남북교류위원회는 이환주 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 언론인, 전문가 등 15명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남북교류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남북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남원=김재훈 기자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노인대학 입학식이 열렸다

## 순창 노인대학 입학식

28개 강좌 개설 7개월 운영

대한노인회 순창군지회 노인대학(학장 강병문) 입학식이 21일 순창군지회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입학식에는 황숙주 군수, 정성균 군의장 및 각급 기관장들이 참석해 노인대학 입학식을 축하했다.

올해 입학생은 남자 20명, 여자 148명 등 총 168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노인대학의 인기는 높아지고 있다. 입학식은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국민의례, 학장인사, 지회장축사, 내빈축사,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노인대학은 작년보다 수강생들의 호응이 높아 4강좌가 늘어난 총 28강좌로 개설되어 7개월간 운영한다.

순창군은 갈수록 높아지는 노인 인구 비율에 대비해 노인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인대학은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고 지식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자리잡으면서, 어르신들간 소통의 장으로도 호응받고 있다.

이날 강병문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대학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니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즐겁고,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만학의 꿈을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숙주 군수는 "우리군은 노인 인구가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복지와 일자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노인 복지시책을 적극 발굴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적극 나서

임실군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귀농·귀촌 유치를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2019 성공귀농 행복귀농 귀농귀촌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 유치를 나섰다.

'성공귀농 행복귀농 박람회'는 국민일보가 주최하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다.

임실군에선 전문 멘토 교육을 이수한 귀농·귀촌 멘토단 4명과 귀농귀촌 지원센터 2명을 포함 총 6명이 참가했다.

군은 박람회 기간 중 임실군 귀농·귀촌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임실군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소개한다.

특히 임실군의 성공적인 귀농귀촌사례 및 안정적인 정착방안 등 다양한 지원정책과 행복하고 유익한 농촌생활 상담을 실시하여 도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군은 현재 수도권에 거주한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 현장실습 및 기술교육 등의 다양한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심 민 임실군수는 "최근 귀농·귀촌하여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는 만큼 적극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맞춤형 정보 제공해 귀농귀촌인 유치를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지역 매아리

#### 새봄맞이 남원 청결의 날 진행

남원시(시장 이환주)는 21일 새봄을 맞아 깨끗하고 청결한 남원을 위한 '새봄맞이 Clean남원 청결의 날' 행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했다.

청결의 날 행사에는 관내 53개 유관기관, 사회단체, 군인, 공무원, 시민 등 4,000여명이 참여하여 관내 도심지 뿐 아니라 시외곽·이면도로·공한지 등 평소 청소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은 농경지·하천·산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일제 수거했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요천동치에서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분리배출 캠페인과 요천변 환경정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남원시는 매월 셋째주 목요일을 Clean남원 청결의 날로 지정하여 관내 대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깨끗한 하천·산·돌 만들기에 일환으로 하천정화사업 추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운영과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휴일청결지킴이 운영, 쓰레기 분리배출 연중 홍보 및 캠페인 전개 등 범시민 지속가능한 Clean남원 활동을 전개한다.

한편 이환주 남원시장은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과 각 기관과 단체에 깨끗하고 청결한 남원 만들기에 동참해 준 것에 감사의 표시로 앞으로도 환경에 대한 많은 관심과 주인의식을 가져달라 당부하였다.

김재훈 기자

#### 농산물 가격안정

#### 지원사업 '양파' 신청

순창군이 오는 31일까지 2019년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농지 소재 읍·면 사무소에서 받는다.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전북도 삼락농정의 대표사업으로,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 시스템을 구축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마련됐다.

이는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보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순창군의 경우 울 삼각기 대상품목은 양파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 신청서를 배부 받아 출하 약정을 할 순창군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과 계약을 체결한 후 출하 계약서 및 신청서를 읍·면사무소에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실태송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효율적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들의 농가소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양파를 재배하는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별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